콘텐츠 유형: 스팟 리포르타주

취재 및 사진: 김세은
자료제공: 갬블러크루

사진-1,2,3> 연습실 외부와 내부

제 3의 문화 포커스

‘B-Boy’

갬블러크루(GamblerCrew)

제 3의 문화로서 거리(Street)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코드로서 비보이(B-Boy)를 포커스 한다.
오이리트미(eurythmie) 동작예술로써 승화 되는 몸짓과 함께 분출 되는 스타일까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갬블러크루의 연습실로 찾아가 보았다. 현재 총 17명이 활동하고 있다.
새로운 인재 양성과 대중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의 힙합을 세계 속으로 전파 시키기 위하여 매일매일 구슬땀을 흘려 연습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들을 만나 인터뷰 해본다.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사진-4> 연습실 내부에 걸린 사진
그들은 공식처럼 그래피티(graffiti)가 그려진 벽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힙합의 4대 요소-비보잉(B-boying), 디제이(DJ), 그레피티(graffiti), 엠씨(MC)

사진-5> 그래피티로 형상화 되어 그려진 포스터 그림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힙합의 4대 요소-비보잉(B-boying), 디제이(DJ), 그레피티(graffity), 엠씨(MC)

비보잉은 힙합의 4대요소중의 하나이다. 힙합은 크게 비보잉,디제잉,그래피티,MC 이렇게 4대요소 라고 부른다. 비보잉의 시초는 정확하지 않고, 여러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초는 70년대 미국 뉴욕 브롱스라는 동네. 시대적으로. 그리고 흑인들의 사회적인 위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시대였고, 브롱스는 범죄자들의 온상. 얽히고 설킨 많은 흑인 갱스터들의 분쟁지역이었다. 이 소외된 지역의 흑인소년들은 마땅한 놀거리도 즐길 거리도 없었다.
현재 힙합클럽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파티. 유럽에서부터 미국까지 경제력 있는 서구인들은 자기집이나 연회장에서 무도회 같은 파티를 여는 문화가 있다. 서구문화권에서 자란 흑인들도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느 특정한날 자기집이나 클럽에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여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것은 상류층의 파티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디제이들이 LP판을 활용해 기존의 음악을 자기 멋대로 믹싱(mixing) 해버리고, MC들은 본인들의 사회를 상대로 가득 찬불만 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방(백인이거나 상대 갱들)을 헐뜯으며, 스스로의 울분을 토해냈다.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틀어주는 음악,랩을 들으며 공감하고 함께 열광적으로 토해 냈으며, 자연히 자신들을 잘 대변해주고,분위기를 이끌어주는 디제이,MC들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당시 인기 있는 디제이였던 자메이카출신의 쿨 허크(DJ Kool Herc), 는 자신이 틀던 음악의 중간에 비트만 나오는구간을 반복해서 틀면서, 대중들이 좀더 춤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구간에 나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댄스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분출하기 시작했는데, 비보잉 또는 브레이크댄스라 불리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갬블러크루 박지훈 팀장/ 비보잉 역사-Peclers Future insight 2009 중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사진-6> 갬블러크루 팀 티셔츠

사진-7> 타투(tatoo)
갬블러크루 팀원 중
사진제공: 갬블러크루

한국 비보이 그들만의 스타일을 외치다.

한국 비보이의 스타일이란 어떤 것일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연습량과 기술을 연구 했다. 그 노력이 현재의 한국 비보이들을 있겠금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는 한국의 기술과 연습량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도 하니 말이다.

각 팀 별로 리듬감에 더 치중하거나 테크닉에 치중하거나 하는 팀들의 전력이 모두 다르며, 리듬을 중시하는 팀의 경우 스타일에 더 충실 하며, 테크닉에 치중하는 팀은 연습용 의상을 입고 나가 기도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동작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한다.

갬블러크루의 경우 그들만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세계대회에 출전하며, 그들만의 스타일로 인정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이 즐겨하는 타투(tatoo)가 있다. 이는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그들만의 에스프리(esprit)를 반영하는 암호와 같은 성격으로 그들 스스로의 마인드 셋을 해주는 정신적인 것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타투는 기존 몸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신 기술이 들어간 페키지 상품의 패턴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음악의 경우 미국의 가요와 같은 곡에 브레이크 비트를 넣은 것을 주로 사용한다. 국내의 경우 '라스트 포원' 비보이 팀은 3년 전 숙명여대 국악과 가야금 연주로 캐논 변주곡을 완성시켜 세계 대회에 나갔으며,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으며, 현재도 국제 대회에서의 여러 나라 팀들이 퍼포먼스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사진-8,9> 세계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장과 트로피

사진-6> 힙합 장르에 대해 적혀있는 벽면을 바라 보고 설명하고 있는
신규상 팀장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일상 생활 속 모든 것은 동작의 영감

비보이들의 춤사위는 단순히 따라하기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움직임에 영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총을 쏘는 모습이 춤 동작으로 연결 될수 있으며, 길을 걸으며 마주 쳤던 사람의 독특한 제스츄어도 동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동작들은 베틀에 나갔을 때 즉흥적으로 음악에 맞추어 추게 되며, 미리 연출되어 짜여진 것은 없다고 한다. 창조성과 즉흥성,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비보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현대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의 영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발생지라 함에 무색하지 않다.

비보이 그 문화적 발전을 위한 노력

국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통해 비보이 협회가 있고 활동 중이다. 국내 유수의 팀들 중 가장 주목되는 몇 팀들의 멤버 중 한명 씩 포함되어 구성 되어있다. 최근 4월~5월 사이 이 협회에서는 문화소외 지역 신청을 통해 8개 학교를 돌면서 복도나 강당 등에서 춤을 선보였다고 한다. 문화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러한 행사는 좋은 추억과 새로운 문화를 접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작은 움직임이나마 문화적인 발전 또는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인 부분으로는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거나 댄스 스쿨을 운영함으로서 힙합을 접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가장 왕성히 주목받던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한다. 단순히 이슈거리로서 한때 지나가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시점으로 문화적인 부분과 함께 성장하여 발전한다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 한국만의 톡특한 신문화를 창출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한다.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겜블러크루 (GamblerCrew)

사진-7> 갤블러크루 팀 / 사진제공: 갬블러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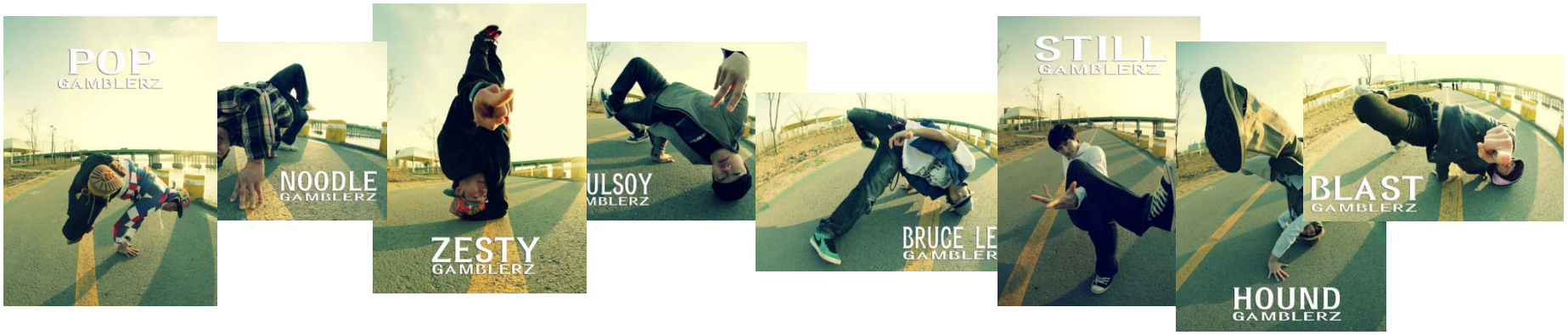
<취재 후기>

춤을 즐기며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추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좋아 보였다. 사람들은 힙합을 하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불건전할꺼라는 인식이 있지만 직접 만나보니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전파하고 노력하는 열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느껴졌다.

10년 정도 춤에만 미쳐서 계속 춤을 춰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는 맴버 들이 너무 상업적인 마인드로 치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문화적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본다.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겜블러크루 (GamblerCrew)



전적
2002년 창단
2004년 독일 배틀오브더이어, 프랑스 배틀디매시 우승
2006년 미국 비보이호다운 세계최초로 종주국제치고 우승
2007년 프랑스 템플오브스타일, 배틀톨루즈 우승
이후 다수 대회 우승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